

신한속독 2022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3
02



Only 50 Only Win

- 신한(信韓), 50년의 역사와 50년의 미래를 보다
-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동문 홈커밍데이 개최
- 2022 신한인(新韓人)들의 여름축제
- 개교 50주년 갈라쇼

-
- 빛나는 신예들의 화려한 무대,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
 - 태권도, 신한대에서 다시 비상(飛上)을 시작하다!
 - 신한대 학술제, 3년 만에 부활하여 빛을 발하다
 -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인재 양성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운영
 - 도서관에 생기를 불어넣다, '중앙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신한대학교 제 9회 국제교육 사회복지 포럼 개최 /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국제포럼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중립 캠퍼스」신한대
학교 인공지능(AI) 언어기반인문학연구소, 2022년 제 3차 학술대회 개최 / Culture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강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23. 02. 27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정윤지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1972 - 2022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편집장 논설
- 06_신한(信韓), 50년의 역사와 50년의 미래
- 10_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동문 홈커밍데이 개최
- 14_태권도, 신한대에서 다시 비상(飛上)을 시작
- 16_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22_2022 신한인(新韓人)들의 여름축제
- 28_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
- 32_신한대학교 제 9회 국제교육 사회복지 포럼 개최
- 34_신한대 학술제
- 36_개교 50주년 갈라쇼
- 40_국제포럼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중립 캠퍼스」
- 42_인공지능(AI) 언어기반인문학연구소,
2022년 제 3차 학술대회 개최
- 44_「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운영
- 46_변화의 시작,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을 만나다
- 48_학생들이 그려낸 공연, 2년 만에 관객을 만나다
- 52_대담한 기자들-기초교양에 관한 대담
- 54_「중앙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56_투탕카멘 발굴 100주년 전쟁기념관 전시회
- 58_영화 헤어질 결심
- 60_책, '삶을 재무장'하다
- 62_책, 내가 살고 있는 지구, 파란하늘 빨간지구
- 64_이모저모
- 68_기부금 현황
- 70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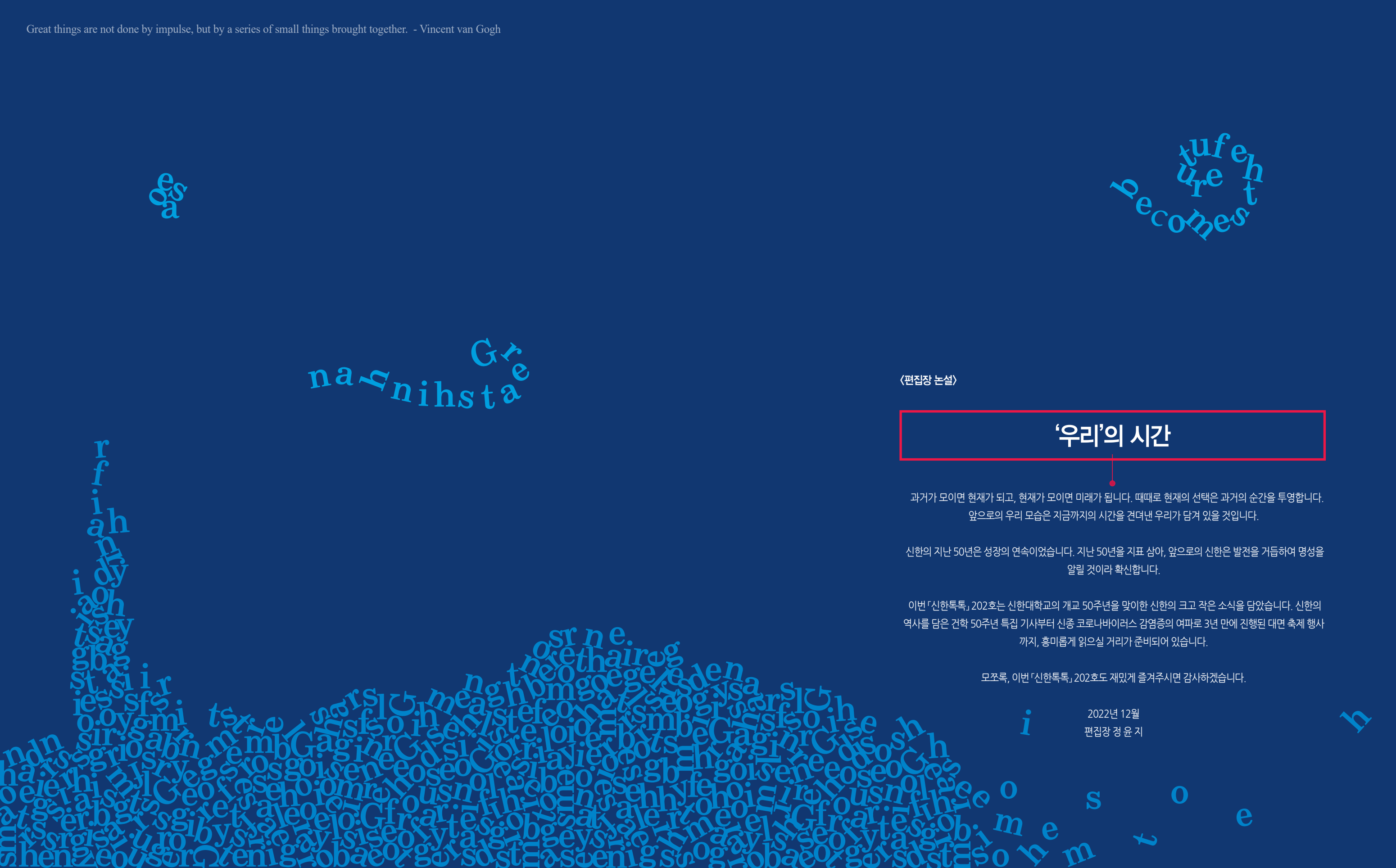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3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편집장 논설〉

‘우리’의 시간

과거가 모이면 현재가 되고, 현재가 모이면 미래가 됩니다. 때때로 현재의 선택은 과거의 순간을 투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모습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견뎌낸 우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신한의 지난 50년은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0년을 지표 삼아, 앞으로의 신한은 발전을 거듭하여 명성을 알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신한특록」 202호는 신한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신한의 크고 작은 소식을 담았습니다. 신한의 역사를 담은 건학 50주년 특집 기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3년 만에 진행된 대면 축제 행사까지, 흥미롭게 읽으실 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신한특록」 202호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편집장 정 윤 지

신한(信韓), 50년의 역사와 50년의 미래를 보다.

경기도의 작은 신흥학원에서 지금의 신한대에 이르기까지
신한의 발자취 돌이켜 보는 50년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신한50, 'Made in Zero'.
1972년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가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신한대학교의 지난 50년을 되짚어보며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앞으로 신한 50년 미래를 도약할 비전을 살펴본다.

■ 강신경 목사의 손끝에서 시작된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의 시작은 1953년 11월, 보육원에서 일어났다. 신한대학교의 설립자 강신경 목사는 1960년대 당시, 6.25 전쟁으로 방치된 아이들을 보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강신경 목사는 동두천지역까지 점차 선교지역을 넓혔다. 1953년 11월, 안흥보육원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는 보육원을 통해 1천여 명의 원아를 돌보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후 1960년 1월 14일, 재단법인 신흥학원을 설립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한다.

작은 겨자씨가 무성한 초목과 거목을 이루듯, 신흥학원은 신흥중학교, 신흥상업고등학교로 개편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설로 성장했다. 또한, 강신경 목사는 신흥여자중학교와 신흥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며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보건 교육에 주력하여 인재를 양성한 신흥재단은 1972년 3월, 신흥보건전문학교로 개교하여 1979년 신흥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1980년 신흥실업전문대학, 1988년 신흥전문대학을 거쳐 1998년 신한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 중합대학,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출발

신한대학은 2014년을 기점으로 뒤바뀐다. 강신경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한북대학교가 신한대학교와 2012년 10월 12일 통·폐합을 선언한 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대학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신한대학교와 한북대학교로 나뉘어 학문 연구와 기술교육에 정진했던 두 학교는 중합대학 신한대학교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김병욱 前 신한대학 총장이 신한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를 넘어 한반도로, 그리고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대학교는 이 시대와 미래가 요구하는 취업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공 가치를 창출하는 취업 명문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Start New-verity'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따라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을 양성하고자 인성교육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재를 길러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는 실용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경험 기회 확장을 위해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하며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의 발편을 제공했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한. 'Made in Zero'

이처럼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 미래를 꿈꾸며 믿음과 소망으로 기술 인재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온 신한대학교는 올해 개교 50주년이라는 역사를 개척했다. 이번 개교 50주년 슬로건인 'Made in Zero'는 신한대학교의 50년의 역사에서 숫자 5를 지우고 무한한 가능성과 궁극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숫자 0, zero만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50년의 역사와 영광을 잠시 기억 속에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도전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기자는 다짐이다.

신한대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와 미래 상황에 맞추어 계속해서 더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발전시키며 대학의 성장과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신한대학교의 앞으로 50년에 대해 지난 반세기는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미래의 50년은 과거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신한대학교의 분교가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이 반세기 동안 겪었던 시련과 도전이 세계 속의 대학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한대학교의 기반이 되었던 신흥학원의 설립자 강신경 목사는 '신한대학교의 보다 큰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랑과 봉사에 투철한 '신한인'을 양성하여 멀리 떨어진 세계의 이웃과도 봉사와 소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한대학교는 보다 명문(名門)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신한지의 지난 50년은 앞으로 계속될 신한대학교의 눈부신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한의 이름이 세계로 뻗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

〈정윤지 편집장〉



‘은혜의 50년, 100년의 비상’,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동문 홈커밍데이 개최

대학설립의 목표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는 시간
내·외빈, 동문 300여 명 참석하여 자리 빛내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 17일 신한대학교 벨엘관 세미나실에서 ‘동문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개교 50주년 동문 홈커밍데이는 신한대학 설립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한 신한인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동문들 노력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50년간 경기 북부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한 신한대학교 동문 간의 유대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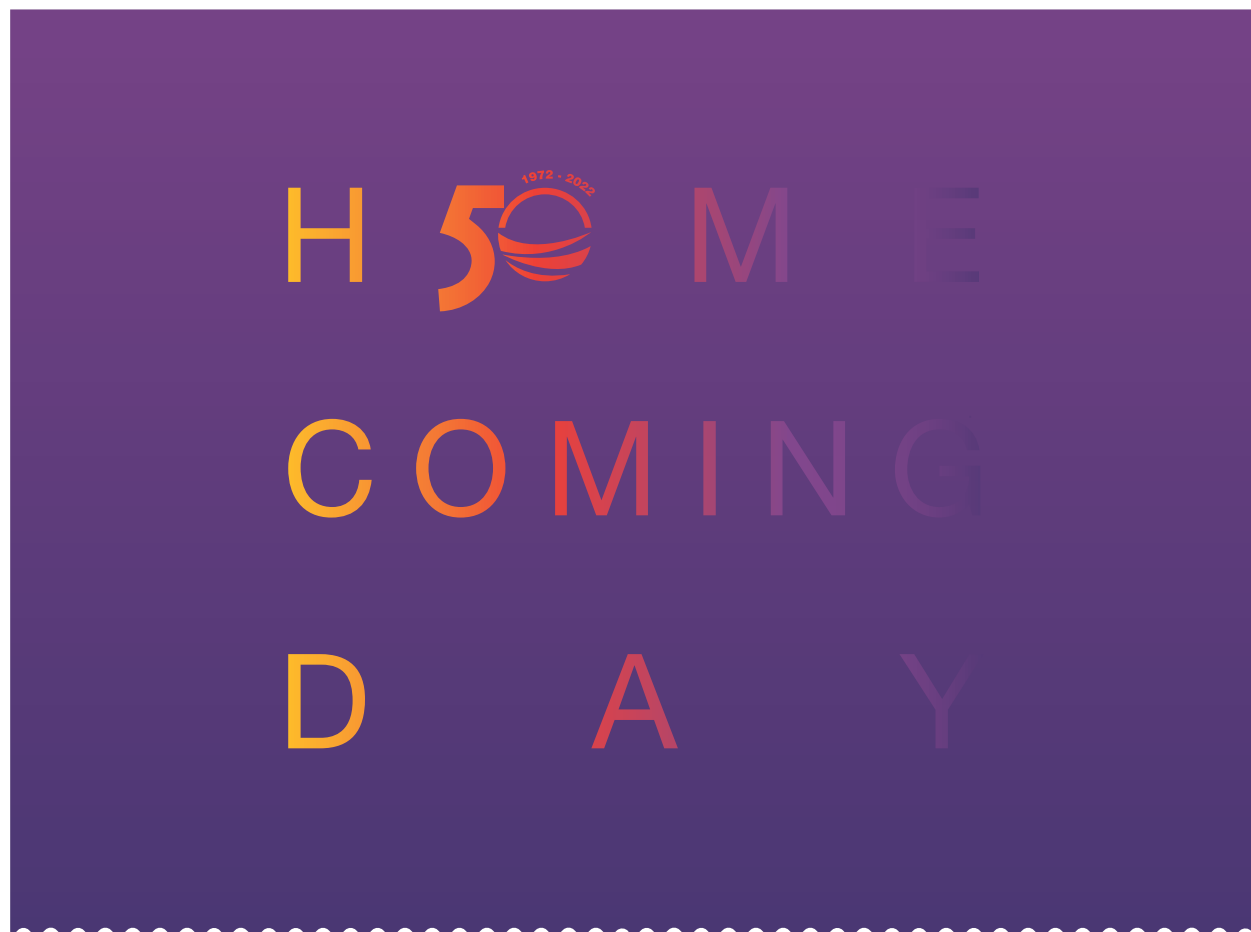
행사는 ‘5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은혜의 50년, 100년의 비상’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됐다. 행사 당일에는 내·외빈, 졸업 동문,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약 두 시간 동안 1부~3부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김영성 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강성현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석재 총동문

회장의 환영사와 강성종 총장의 격려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이어진 축사는 김문원 석좌교수,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협회의 회장,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 김민철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과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이 맡았다. 이후 2부는 오늘의 신한대학교를 있게 해준 동문&귀빈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3부에서는 폐회식과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 이석재 회장은 환영사에서 “신한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라며 신한대학교가 걸어온 50년의 행보를 치하했다.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시기에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해 동문회가 다시 한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동문들에게 향후 도약할 100년의 미래에 정성과 관심을 모아주길 간곡히 청했다.





이후, 2부 행사에는 지난 50년간 신한대학교를 빛내준 이들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감사패 수여는 이석재 총동문회장이 진행했다. 김병욱 초대 총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오연석 도봉구청장 외 6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후 강성중 총장과 이석재 총동문회 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 외에도, 이날 신한대학교를 빛내준 동문&귀빈들에 대해 '올해의 신한인', '송공패' 등이 총 12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창학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온 50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100년을 다짐하는 장이었다. 개교 이래 지나온 시간에 대해 '은혜'의 50년이라 평가하고 이를 기렸으며, 다가오는 100년의 '비상'을 준비하기 위

해 동문과의 유대와 결속을 증진하는데 의미 중점을 두었다. 과거, 험벗은 경기 북부의 땅에 세워진 작은 전문대학으로 출발했던 신한대학교는 오늘날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명문대학이 되었다. 은혜 속에서 50년간 발전해온 신한대학교가 비상할 100년의 미래를 기대할만하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_욥기 8장 7절

〈정윤지 편집장, 김민성 기자〉



이석재 신한대학교 총동문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민철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

태권도, 신한대에서 다시 비상(飛上)을 시작하다!

2022년, 창학 50주년 및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태권도대회 개최
50주년 개교기념일, 학술제와 더불어 전국 태권도 시범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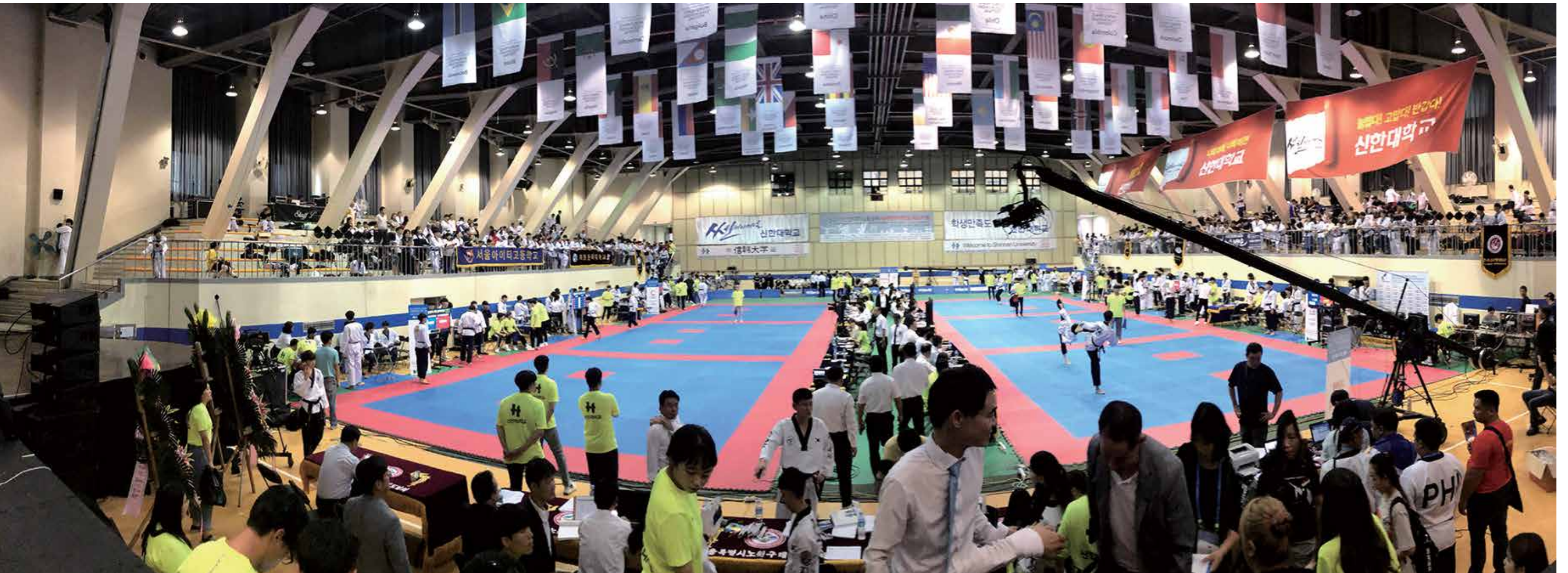
신한대학교가 특장으로 내세우는 분야 중 하나는 문화·예술·체육의 전공이다. 특히, 신한대학교는 2019년부터 공연예술대학에 태권도교육융합전공 설치하며 태권도와 공연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같은 해에 '세계 평화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태권도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공연예술 및 체육 계열의 행사가 암흑기를 맞이한 지난 2년 동안에도 신한대학교는 대학 최초로 '2020 온라인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팬데믹 상황에서의 발전 속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태권도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대보다 더딘 성장을 해오던 중,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과 맞물리는 2022년부터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 창학 50주년&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신한대학교 제1회 총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과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신한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KTA) 공동 주최, 주관으로 지난 4월 2일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태권도의 3대 종목이라 불리는 겨루기, 격파, 품새 분야로 종목을 세분화했다. 총 세 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대회는 무려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겨루기 부문은 4월 2일부터 시작해 다음 날인 3일에 내렸으며, 품새는 그다음 주인 4월 8일부터 10일, 격파는 개최 약 3주 뒤인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진행됐다.



각 분야의 대회 당일마다 코로나 시대에 보기 힘든 인파가 몰려 이목을 끌었다. 대회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부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진행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이전에 개최된 종목들도 있었다. 이에, 거리두기 해제 전 개최된 종목에 대해서는 신han대학교의 대회 관계자 및 통제 인원들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대 이후, 2년 만에 신han대학교에서 대면 환경에서 개최한 행사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신han대학교는 미래 한류 문화 선도를 위해 2019년 공연예술학부에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을 설치했으나, 잇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년간 특별한 대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던 상황에 있었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코로나 극복과 태권도 발전에 있다”라며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 개교 50주년 기념 및 제1회 대한민국 태권도시범문화협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10월 10일, 신han대학교 50주년 개교기념일과 맞물려 ‘제1회 대한민국 태권도시범문화협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신han대학교 은혜관 지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신han대학교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전국 태권도 대회는 10월 10일에 개막하여, 11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되었다.

대회는 경기부문과 경연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행사가 진행된 이틀 동안 대회장에는 태권도 시범선수와 지도자, 기술심의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초등부부터 성인부까지 전 연령대가 모여 함께 진행했으며, 마치 가을 축제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또한, 신han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태권도 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25개국 45명의 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들도 대회를 관람하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회’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 이틀 동안 선수와 보호자, 지도자 및 관객 등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의 인파가 오갔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문화협회 임원진들이 2년간 개발한 채점 규정 및 난이도를 오프라인 대회로 처음 선보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채점 방법을 통해 선수들과 지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기문화와 기술 체계 확립 등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더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이었다.

또한, 대회가 진행된 이들은 신han대학교의 추계 학술제 및 개교 50주년 행사가 함께 진행됐던 주간이다. 같은 주에 있었던 개교 50주년 기념 축사에서 강성종 총장은 “신han대학교의 50주년은 제로이고 원점이다. 제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대다. 신han대학교가 무엇이든 될 수도,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 앞으로를 지켜봐 달라”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신han대학교는 태권도계 신홍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제1회 대한민국 태권도시범문화협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민성 기자〉



‘신한 50, Made in 0’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강성종 총장 “제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대”

1972년 3월 신흥보건전문학교로 시작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가 지난 10월 10일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전국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신한 50주년을 알리는 개교기념식은 10월 11일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100년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신한 50의 의미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응집력 있는 결속을 통한 대학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은 강성종 총장이 신한대학교 군사학과 의장대를 사열하며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1부에는 박정호 목사와 안현수 목사의 기도와 설교가 이어졌다. 안현수 목사는 기도를 통해 “설립자 강신경 목사와 김병욱 초대 총장의 노고로 신한대학교가 놀라운 성장을 했다”며 이에 감사함을 표했다. 다음으로 강성종 총장이 기념사를 이어받았다. “제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대이다. 비운만큼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앞으로의 5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후 “신한 50! Made in 0!”을 외치며 새로운 신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끝으로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순서는 자랑스러운 신한인상,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 감사패 전달, 장기근속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랑스러운 신한인상은 김병욱 신한대학교 초대 총장과 9명이 수상하였고, 명예교수로는 김경한 前 법무부 차관, 변도윤 前 여성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마지막으로 감사패는 안민석 국회의원 외 12명이 전달받았다. 자랑스러운 신한인상을 받은 김병욱 초대 총장은 “신한대학교가 발전을 거듭하여 50년의 역사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며 신한대학교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했다. 같은 상을 수상한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신한대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과 디딤돌이 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변도윤 명예교수는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며 상을 준 총장, 신한대학교인들에게 감사하다”며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신한대학교는 반세기 동안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이라는 길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과 지역 사회가 성장하는 선순환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교 50주년 행사를 함께하게 된 기쁨을 표했다.



2부는 태권도교육융합전공학과와 태권도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절도 있는 군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뒤이은 영상 축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많은 귀빈이 신한대학교 50주년을 함께했다. 이에 강성종 총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한대학교가 미래를 선도하는 불빛이 될 것이며, stronger together! 함께 할 땐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바꿀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새로운 신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알렸다. 또한, 신한대학교 50주년 개교기념식에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개교기념식에는 해외 각국의 귀빈도 다수 같이했다. 순서는 명예박사 학위수여,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명예박사로는 위리안티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사히드그룹 회장 외 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바쿿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외 2명이 명예

교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마지막으로 감사패는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외 3명에게 돌아갔다.

5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이들이 자리를 지키며 한마음으로 격려를 보낸 개교기념식. 오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슬로건 ‘신한 50, Made in O’에 걸맞게 채움과 비움을 통해 더욱 성장할 신한대학교의 앞으로의 여정에 기대를 표한다.

〈조수빈 기자〉



2022 신한인(新韓人)들의 여름축제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열광의 도가니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의 진행과 각 학과, 동아리의 부스 운영
현아, 기리보이, 저스디스, 키드밀리 등 요즘 대세들의 축하공연

신한대학교는 2022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2 신한인(新韓人)들의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대학 축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축제 당일 교내 건물과 운동장에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학과, 동아리가 운영하는 부스가 배치되었다. 부스에서는 각종 게임, 포토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부스에 모여 들었고, 이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또한 총학생회는 연예인 섭외,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푸드트럭, 푸드존을 준비하여,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함께 각종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분에 눈과 입 두 가지를 만족시킨 축제가 되었고, 캠퍼스 곳곳이 열광의 분위기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기사들로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 축제를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부스 도장깨기

2년 만에 돌아온 축제인 만큼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했다. 항상 비어 있던 운동장은 천막이 둘러진 부스와 운동장에 펼쳐진 부스를 즐기는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축제를 가장 축제답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부스를 체험하는 것이다.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은 직접적으로, 부스를 돌아다니며 즐기는 학생은 간접적으로 축제를 경험한다. 각 학과의 단과대와 동아리로 이루어진 부스는 저마다의 특색을 담아 이번 2022년 축제를 꾸렸다.

식품조리과학부에서 운영한 '이 잉~하와이 잉~'와 외식조리전공과 동아리 팡듀에서 운영한 '땅 충전소'가 인기를 끌었다. 이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먹을거리가 많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다. 평소 학교에서 보기 힘든 푸드트럭도 열기를 더했다. 에너지환경공학부가 운영한 '너 좀 치냐?'에서는 펀치를, 아람 사진연구회 동아리 부스인 '아람과 함께 찰칵'에서는 폴라로이드와 즉석 사진 인화 등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다트 풍선, 캘리그라피, 비즈 부스 등 축제 분위기를 더할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부스를 구경하는 이들의 양손에는 축제의 흔적이 가득했다.

■ 컨셉 장인, K-POP 학과

K-POP 학과는 총 3팀으로 무대를 구성하였다. 각 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채 무대를 꾸며나갔다. 또, 화려한 의상이 안무와 어우러져 퀄리티 있는 무대를 만들어 냈다. K-POP 학과의 첫 번째 팀은 'made in china'로 중국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다. 이들은 'Lip & Hip', 'I'm Not Cool' 등의 무대를 남녀 합동 공연으로 보다 다채롭게 선보였다. 다음 무대는 '신스파'로, 팀명에 걸맞게 에스파의 'Next Level'에 맞춰 호응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힐댄스를 선보인 '힐걸즈'는 높은 굽을 신고도 파워풀한 안무로 무대를 장악했다.



■ 뛰어난 무대 장악력, 댄스동아리 '홍'과 힙합동아리 '악당'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축제 무대는 계속되었다. 신한대학교 대표 댄스동아리 '홍'은 'Run the World'라는 곡으로 무대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Hey Mama'의 안무를 남성 솔로 무대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뒤로 'Love dive', '해야 해', '미쳐', 'Step Back' 등 케이팝을 통해 계속해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힙합동아리 악당은 '119' 등의 노래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궜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떼창을 이끌어냈다. 악당 일당은 "사람도 많고 비도 오는데 다 같이 즐길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라며 성공리에 공연을 마친 소감을 표했다.

■ 무대 위 빛나는 꿈에 도전하다, '청춘가요제'

오후 6시가 되자 교육방송국 S.E.B.S에서 주최한 '청춘가요제'가 시작되

었다. 행사는 '3년 만의 만남, 그리고 5월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걸맞게 현장의 관객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본선에 진출한 5팀의 참가자들은 당당하게 실력을 뽐내며 무대를 빛냈다.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마음을 적시는 발라드부터 누구든지 뛰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음악까지, 각양각색의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다. 3년 만에 개최된 축제의 첫 공연인 만큼 참가자와 관객 모두 묵힌 스트레스를 해소하듯 열정과 함성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등을 차지한 팀은 유아교육과에서 출전한 '라일락' 팀이었다. 이들은 4명으로 구성된 밴드였으며, 윤하의 '비밀번호 486'을 완성도 있게 합주하였다. 라일락은 "아예 공연을 못 할 뻔했는데 고생을 한 만큼 보답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Adele의 'Rolling in the deep'을 부른 간호학과 이영주 학생, 김동률의 '감사'를 부른 K-POP 학과 이서호 학생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 화려함과 매너로 뽐낸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태권도 공연'

뜨겁고 화려했던 치어리딩 대회가 끝나고, 다음 무대에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이하 '태권도 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태권도 학과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공연은 크게 태권무와 격파 시범으로 구성되었다. 태권무는 BTS의 'I'm fine'와 Maroon 5의 'Lucky Strike' 등의 대중가요에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결합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진 격파 시범에서는 성인 키의 두 세배가 훌쩍 넘는 높이의 송판을 마치 하늘을 나는 듯 격파하여, 화려하면서도 신기한 격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태권도 공연의 인상 깊은 점은 공연을 마친 이후에도 있다. 태권도 학과 학생들은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최종 인사를 올린 뒤, 일제히 흩어져 무대와 무대 주변까지 떨어진 송판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수거하

는 매너를 보여주었다. 화려한 공연뿐 아니라, 관객석 안근과 백스테이지까지 청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몇몇 관객들은 그들에게 환호를 날렸다. 무대 주변의 모든 송판 조각이 사라지고 나서야, 태권도 학과 학생들은 관객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무대를 떠났다.

■ 축제의 아름다운 소리를 덧입히다, '소리פה'와 '밤'

코로나로 인해 거리의 음악이 사라진 지 어언 2년, 여름밤 길거리를 흔히 장식해 주던 버스킹 공연조차 자취를 감춘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번 '신한 대축제'에서 어쿠스틱 음악동아리 '소리פה'와 밴드동아리 '밤'의 공연은 코로나 이전에 버금가는 '축제의 밤'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다. '소리פה'는 어쿠스틱, R&B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선명한 연주와 목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매료시켰다. '밤'은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을 열창하며 명실상부한 신한대학교 중앙 밴드 동아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다, 개회식

이틀간 진행된 축제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볼거리들과 먹거리들이 풍부했던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개최되어, 그동안 학교 행사를 즐기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큰 추억이 되었다. 이번 축제의 개회식은 최초로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과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의 편영민 총학생회장이 함께 선언했다.

이날 강성중 총장은 “오늘 행사를 위해 총학생회단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고생했다.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며 “신한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최고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축제의 시작을 함께 했다.

■ 신한인의 꿈을 응원하며, 신한 치어리딩 대회

오후 7시부터 신한 치어리딩 대회가 펼쳐지면서 축제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총 다섯 개의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심사는 학생팀 전국 현 부처장, K-POP 학과 배진택 교수,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의 이지영 부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단합력과 관중 호응, 열정을 심사 키워드로 꼽았다. 대회는 치위생학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임상병리학과와 무대가 이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절도 있는 동작들로 강렬하고 열정적인 무대와 발랄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신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중석의 분위기를 띄웠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실시간 좋아요 수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 인기상은 사회복지학과, 2등은 치위생학과, 1등은 임상병리학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화려한 여름 축제를 더욱 신나게, DJ 파티와 현아

25일 첫날, 디제잉으로 한껏 분위기가 떠올랐던 20시경 현아의 무대가 준비되었다. 3년 만에 보는 연예인 무대이며, 한창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가수 현아의 무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운동장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현아는 히트곡인 ‘빨개요’, ‘Lip&Hip’, ‘Bubble Pop’ 등 여러 노래를 열창했고, 학생들은 열광했다. 현장 한가운데 그 분위기는 마치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를 방볼게 했다.

학생들은 장대 같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떼창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감동받은 현아는 무대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등 그 열기는 코로나로 얼어 있던 신한인들의 소속감을 녹이기 충분했다. 현아는 앙코르곡까지 마친 후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고, 신한대학교를 뜨겁게 달궜던 축제는 그렇게 끝나치게 되었다. 무대가 끝난 이후 흥분해있던 모두였지만, 질서 있게 퇴장하고 의자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발전 정도도 느껴볼 수 있었던, 여러모로 인상 깊었던 무대였다.

■ 축제 밤을 더 뜨겁게! 키드밀리, 저스디스, 기리보이

신한대축제의 마지막 밤은 연예인 무대로 뜨겁게 장식됐다. 무대 앞 학생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다.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른 키드밀리는 ‘999’를 시작으로 ‘achoo remix’, ‘reset’, ‘momm’ 등의 노래를 불렀다. 세 번째 곡 ‘reset’에서는 학생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좌우로 흔들며 키드밀리의 무대에 화답했다. 키드밀리는 학생들의 응원에 반응하여 무대 위에 준비돼있던 물을 학생들에게 뿌리는 등의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어 무대에 오른 저스디스는 키드밀리와 함께 ‘momm’을 부르며 무대의 열기를 이어나갔다. 저스디스는 ‘뿌리’, ‘옛다’, ‘존시나’ 등의 노래로 열띤 공연을 펼쳤으며 능숙하게 학생들의 떼창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무대 아래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공연을 즐겼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기리보이는 ‘호구’, ‘예쁘잖아’, ‘내일이 오면’ 등의 히트곡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기리보이는 공연 중 관객석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뜨거웠던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리보이, 키드밀리, 저스디스 모두 무대에 올라 ‘flex’, ‘indigo’ 등을 열창했다. 학생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으며 모두 하나 되어 축제의 마지막 밤을 즐겼다. 마지막 곡 ‘아퍼’를 끝으로 유달리 뜨거웠던 2022년 신한대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축제에 앞서 “코로나로 3년간 진행하지 못한 축제를 오랜만에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특히 2022년은 우리 대학의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많은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및 행사를 만들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 이 축제를 위하여 노력해 준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와 편영민 총학생회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 및 지역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의 축제는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이다. 행사를 진행한 신한대학교 류재경 학생처장은 “앞으로도 학생처는 재미 있고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즐겁게 임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취재=정윤지, 김민성, 김유진, 조수빈, 강슬비, 이민주,
이신현 기자 · 정리=김치현 기자〉



빛나는 신예들의 화려한 무대,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

창의적 모델 발굴과 양성을 위해 기획
대상 우승자 황준택(19)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것”

지난 10월 12일, 개최한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 이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로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는 창의적 모델 발굴과 양성을 위해 기획한 문화 콘텐츠 플랫폼이며, 루키 모델들의 현장 경험을 쌓게 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한대학교 모델콘텐츠전공을 알리는 데에도 한몫했다. 본선 이전, 9월 25일 예선을 통과한 루키 모델들에 한하여 10월 10~11일 교육 및 리허설이 진행됐다. 콘테스트의 시작은 오프닝 영상 및 어린이연주로 막을 열었다. 연주와 어우러진 오프닝 런웨이는 그들만의 아우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오프닝 공연 이후에는 강성종 총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날 콘테스트에는 루키모델들과 많은 관객, 김동근 의정부 시장, 양익식 한국 모델협회장 등 여러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에 강성종 총장은 “콘테스트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신한류 모델 콘테스트를 통해 세계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는 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과 함께하는 행사”라며, 한결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하는 루키 모델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모델을 선도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루키 모델들을 향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축사를 끝으로 루키모델 워킹이 진행되었다.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런웨이가 시작된 것이다. 추운 날씨임에도 루키모델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의상을 갖춰 입고 무대를 활보했다. 무대를 거니는 루키 모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에 그들의 열정이 비춰졌다. 그렇게 경쟁했던 런웨이를 통해 총 70여 명의 루키모델 중 20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되었다. 평가는 사전점수 70점, 현장 점수 30점으로 사전 점수는 이를 전 10월 10일, 신한대 모델콘텐츠 전공 교수들의 심사로 이루어졌다.

본선을 앞두고 아시아모델 패션쇼가 이어졌다. 각 나라의 전통복을 이용한 패션쇼로 본선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다. 공연을 선보인 아시아 모델들에게는 장학 특전이 수여되었다. 수여식 뒤, 모두가 기다리던 루키모델 워킹 본선 경합이 시작되었다. 본선 무대는 예상대로 예선 무대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이들이 입은 의상은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김서룡, 신유지, 한왕모 교수가 함께 만든 작품으로, 루키모델들이 본인이 입은 옷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디자이너가 담은 의도, 가치를 자신의 색깔로 표현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루키모델들은 이를 증명하듯 워킹을 통해 그들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상식을 앞두고, 소미더머니10 우승자 래퍼 조광일의 축하 공연이 이루어졌다. 큰 인기를 끈 히트곡 '국에서'부터 'wake up' 등 다양한 랩을 선

보이며 열기가 가라앉을 틈이 없게 했다. 신나는 곡들로 호응을 유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무대였다. 무대가 끝난 뒤,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결과가 공개되었다. 실시간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루키모델들은 물론, 관객 또한 긴장감을 가지고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2022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우수상은 참가번호 15번 이효주, 최우수상으로는 참가번호 38번 장경윤이 선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번호 67번 황준택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슈퍼루키로 선정된 황준택은 “본선에 진출하여 대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슈퍼 루키 콘테스트를 통해 좋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를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3,0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신한대학교 모델콘텐츠학과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전을 받게 된다. 추가로 고스트 모델 에이전시 캐스팅 및 무료수강의 기회까지 얻게 된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의 “오늘 이 무대에 섰던 모든 모델은 무한함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무한한 미래를 기대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2022 슈퍼루키 콘테스트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참가한 모든 루키모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더 큰 무대를 향해 도약하길 바란다.

〈조수빈 기자〉





신한에서 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를 얘기하다! 신한대학교 제 9회 국제교육 사회복지 포럼 개최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총 5개국 참여

2022년 10월 13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제9회 국제교육 사회복지포럼'이 열렸다. 제9회 국제교육사회복지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의 사회복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 및 변화를 진단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리이다.

포럼은 약 세 시간 동안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포럼에서는 미래복지재단 최성균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최성균 이사장은 "신한대학교 50주년에 감사하며 본 포럼을 위해 힘써준 신한대학교에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신한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신일 前 교육부 총리, 최정희 의정부시 의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또한, 특별 공연으로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 (양상 PEACE)'가 참여하여 우정의 노래 외 7곡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문진영 교수의 「복지국가 전망: 복지국가에서 돌봄 국가로」 발표에 이어 중국 저장사범대학 법정대학 학장 멩 리우 교수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미래전망」, 일본의 나가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도시사대학 쿠로키 야스히로 명예교수 「아동가정복지에 관한 일본의 현황과 과제」, 말레이시아의 사바대학교 피터 부 교수의 「말레이시아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미래전망」,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노 티옹 탄 교수의 「싱가포르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아시아와 그 너머에서」를 발표했다. 문진영 교수는 복지와 돌봄의 차이를 설명하며 아동 돌봄의 재구조화, 학교 돌봄과 마을·지역 사회 돌봄을 강조했다.

3부에서는 '국제교육·사회복지 포럼 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의 「새 정부 출범, 한국의 복지 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현장의 변화」,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윤춘모 교수의 「중국 사회복지 미래와 전망」,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희숙 교수의 「일본의 아동복지법 토론문」, 김원기 前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말레이시아 복지 정책의 현실과 미래」,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석표 회장의 「싱가포르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토론을 맡은 박일규 회장은 "코로나 19라는 재난적 위기

를 겪으며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일규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돌봄 측면의 일상 생활 지원으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인프라 및 체계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한대학교는 '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제교육 사회복지 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복지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강서현 기자〉



신한대 학술제, 3년 만에 부활하여 빛을 발하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신한대 학술제,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성공적 개최

- 리나시타교양대학, 치위생학과, 국내 학술 포럼에서 수준 높은 학문 결과 발표
-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와 체력왕 대회부터 뷰티헬스전공의 뷰티체험활동까지, 다양한 활동 부스 운영

10월 12일부터 14일, 이틀간 신한대학교에서는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2019년 학술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22 학술제는 모든 학과가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려 부스를 운영했고, 그 기획은 기대를 넘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12일부터 13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리나시타교양대학의 학술포럼과 베엘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치위생학과와 의학과 학술포럼은 학과의 학문 결과를 교류하기 위한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학술포럼 마지막 순의 '라운드테이블' 때는 취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과 선배들을 초대해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업에 대한 과정과 고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부터 14일 은행관 지하 2층 체육관에서는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학과의 특성을 살린 게임, 체험, 뽑기,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다채로운 부스들이 즐비했으며, 높은 참여도로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상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마음껏 즐겼으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학술제 현장 무대에서는 '취업설계 인생 재테크 특강'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인 만큼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는 과의 특성을 살려 체력왕을 가리는 부스로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까지도 이목을 사로잡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미디어언론학과 또한 과 특성에 맞춰 영상 상영회와 맞춤법 퀴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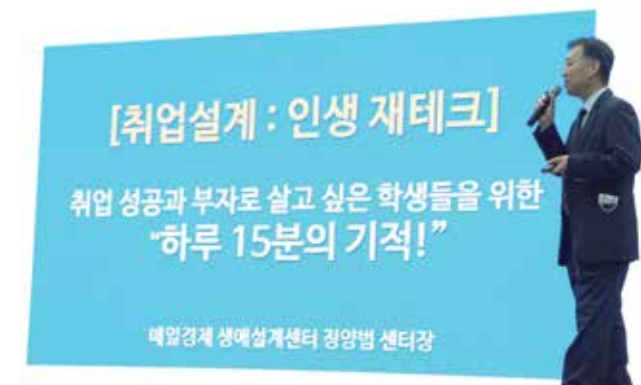
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고, 섬유소재공학과는 '열전사염'기법을 사용해 마스크 또는 반팔티에 자신의 학과 또는 원하는 시안을 찍어 줌으로써 많은 학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찰행정학과는 증거를 모아 범인을 찾는 퀴즈, 범죄 상식 퀴즈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토지행정학과는 조건만 보고 토지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임인 '토지의 마블' 등의 매우 흥미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스는 바로 뷰티헬스전공에서 진행한 체험 부스였다. 뷰티헬스전공 부스에서는 젤네일, 아로마 향수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등의 수준 높은 체험을 진행했다. 사람이 물릴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약을 받고 진행했는데,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과 부스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 중인 동아리, 단체, 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진 부스는 바로 신한대학교 마스코트 캐릭터인 '호이' 부스였다. 호이 부스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퀄리티 높은 키링, 머그컵, 담요 등의 굿즈들을 증정하거나 판매하며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각 학과의 학술적 성취를 저마다의 개성으로 다채롭게 꾸며냈고, 반응은 뜨거웠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더욱 풍성하고 규모 있게 진행된 이번 학술제는 각 학과 학생들의 수많은 노력에, 프로그램을 즐기 위해 학술제 현장을 찾은 많은 학생의 열정적인 참여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민주, 하성문 기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던 지난 10월 13일, 신한대학교 은혜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교 50주년 갈라쇼가 진행되었다. 이번 갈라쇼는 신한대학교의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년 만에 개최되어,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되었다. 신한대학교가 주최하고 진행한 갈라쇼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갈라쇼는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학생들의 화려한 공연과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사이버드론보급군사학과와 예도식과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의 축하인사, 연예인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모았다.

들든 열기를 이어 공연예술학부-K-POP전공 학생들의 소울 댄스와 워킹 댄스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졌다. 무대에 선 학생들의 안무가 음악에 맞춰 정확하게 맞춰지고, 무대 위에서 멋진 동작들이 연결될 때 무대 아래에서는 공연을 즐기는 이의 함성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의상과 음악, 그리고 멋진 댄스까지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다음 무대는 이번 갈라쇼에서 선보이는 또 하나의 특별한 패션쇼가 선보여졌다. 공연예술학부의 모델콘텐츠전공 학생들과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의 합동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본 패션쇼는 '제1회 신한대학교 모델콘텐츠전공 졸업패션쇼'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 뜻깊은 무대였다. 학생들은 결말 없는 이야기 <COMMA>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진행해 관객에게 선보였다.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거침없는 워킹, 그리고 보는 눈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화려하고 멋진 의상들과 함께 어우러진 패션쇼는 '개교 50주년 갈라쇼'를 보는 맛을 더해주었다. 쇼 피날레에서 모든 모델이 다 같이 등장하여 워킹하는 장면은 마치 패션위크 시즌에 디자이너 쇼를 관람하러 간 것처럼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화려한 패션쇼에 이어서 공연예술학부-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의 태권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공연에서 빠지면 아쉬운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의 공연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아냈다. 날렵하게 움직이는 몸과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움직임으로 보는 이들이 더 긴장하고 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태권도의 공연이 이번 갈라쇼에서도 한 몫 보여주었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태권도의 매력을 '개교 50주년 갈라쇼'에서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개교 50주년 갈라쇼'에서 공연예술학부의 무대들은 관객들에게 각 학과의 매력을 전달하고 학과의 정체성을 톡톡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자신의 능력치를 확실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2부 공연은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의 예도식으로 시작했다. 시작 전부터 머리 위에 있는 드론에게 시선을 빼앗겼는데 2부에 있을 공연을 준비했던 것이다. 예도식이 끝난 뒤에는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축하

하는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의 축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뒤이어 연예인 3팀의 신한대학교를 위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가수 편치, 가수 오마이걸, 가수 임창정의 라인업으로 이루어진 축하 공연은 이미 뜨거운 대로 뜨거워진 열기에 불씨를 더했다.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모든 무대에 에너지를 쏟았고, '개교 50주년 갈라쇼'를 즐겼다.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올해 갈라쇼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갈라쇼에 참여한 신한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긴 가을 축제는 어떤 이에게는 추억으로,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후련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다. 신한인들이 직접 꾸며낸 갈라쇼는 신한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멋있게 기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무대에 올라 꿈을 펼치는 모든 신한인을 응원한다.

〈강슬비 기자〉



신한대학교 개교 50주년 국제포럼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중립 캠퍼스」

강성중 총장, “탄소중립 캠퍼스 운동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

2022년 10월 12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국제포럼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중립캠퍼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중립 캠퍼스’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지금까지의 그린 캠퍼스 운동은 대학 내에만 머물러 지속성과 활동성의 제약이 있었다면 이번 탄소 중립 캠퍼스 운동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목표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그린 캠퍼스 활동 사례를 파악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 방안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의 환영사로 1부 포럼이 시작됐다. 이후 노웅래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축하가 진행됐다. 2부 포럼은 덴마크 기업 댄포스 마틴 로센 부사장과 김성엽 댄포스 동북아시아 총괄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이후 3부에서는 정충현 SK텔레콤 Energy Infra 사업 팀장의 SK텔레콤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 캠퍼스 구축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환영사에서 “기후 위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의 핵심 해결 방법은 탄소중립입니다.”라며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4차 산업 혁명은 탄소중립, 제로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4차 산업 혁명은 탄소중립으로 시작해야 하며 전 세계에 있는 기업, 도시들도 제로 비즈니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이 커리큘럼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라며 신한대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슬로건을 넷 제로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한대학교가 함께 제로 베이스 캠퍼스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탄소 넷 제로의 염원을 남겼다.

이어 2부에서는 덴마크 기업 댄포스 마틴 로센 부사장과 김성엽 댄포스 동북아시아 총괄 대표의 기조 강연이 시작됐다. 마틴 로센 부사장은 “노후된 건축물은 에너지의 비효율화를 증가시킨다”며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주장했다. 김성엽 대표는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윤 추구의 목적만을 가졌던 과거의 기업들과



는 달리 현재는 이해관계자의 만족뿐만 아니라 가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부에서는 정충현 SK텔레콤 Energy Infra 사업 팀장의 신한대학교 스마트에너지캠퍼스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를 발표했다. 정충현 사업 팀장은 “전기로 10% 인상, 지역난방 24% 인상 등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를 줄이거나 효율화 시키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라며 신한대학교에서도 E&S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겪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해 ‘지역과 동행하는 탄소 중립 캠퍼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역과 신한대 간의 그린 캠페인 행사를 진행해 지역주민과 신한대 학생의 연계와 환경 의식을 증진 시키는 등의 활동을 기대한다.

〈강서현 기자〉



신한대학교 인공지능(AI) 언어기반인문학연구소, 2022년 제3차 학술대회 개최

지난 7월 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를 주최한 인문학연구소는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미래 학문체계, 지원체계 구축과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학연 융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21년 3월 19일 설립되었다. 또한, 인문학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사회 상황 예측과 학문 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능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신한대학교의 의지에 부응하여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 대회는 “기계번역과 일자리 프로그램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의정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모색’, ‘인재 양성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점 연구 과제를 목표로 한 산학 간의 협력과 학제 간 융합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소주제가 이어졌다. 대면 강연과 비대면 강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채택하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였다. 교내 교수님들과 국내외 학자들은 물론, 산업체에서 국제적 인공지능 기업인 ‘Lampas AI’의 정의용 CEO, 번역 플랫폼 개발의 선두 주자인 메타트랜스 박미진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들까지 동참하는 활성화된 대회로 진행되었다.

“기계번역과 일자리 프로그램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 대회는 그중에서도 의정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모색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의정부 지역의 핵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인 지역사회 발전방안 연구와 실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관계자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학술대회에서는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기북부 지역이 지닌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민관산학이 상생, 협력하는 기틀을 본 연구소와의 학술적 연계를 통해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전현주 부소장은 “연구소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언어기반의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 직업 교육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신한대학교의 미래 비전인 융복합 학문체계 정립과 소프트 파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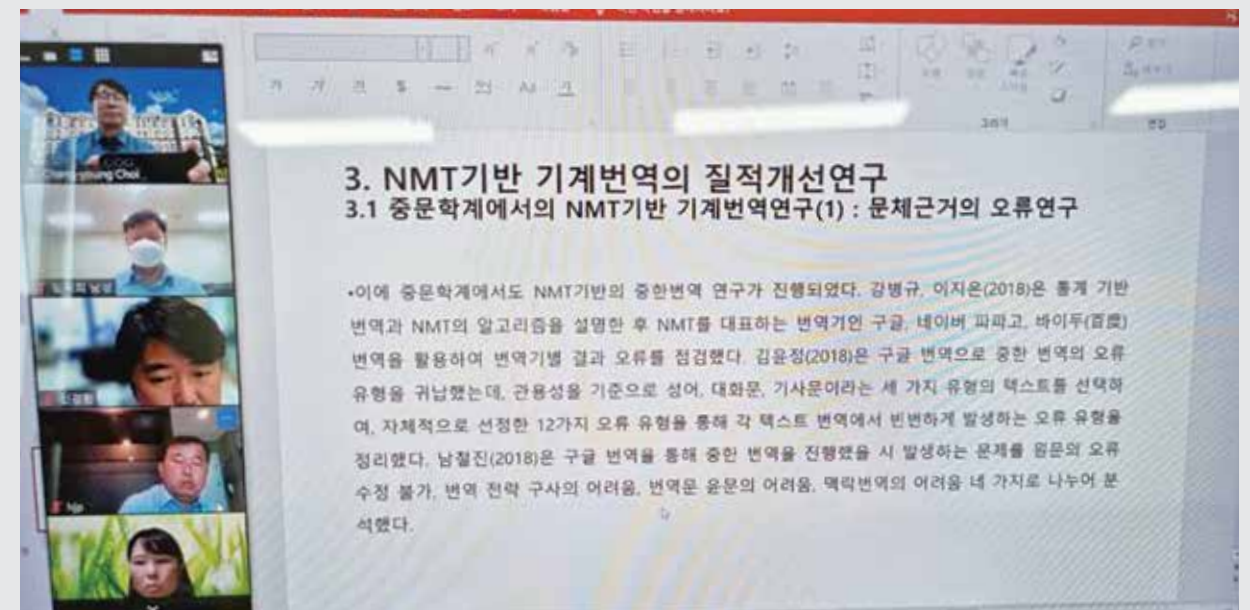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재 양성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점 연구 과제를 목표로 산학 간의 협력과 학제 간 융합 연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토의되었다. 21세기 인문 사회과학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유물론에 대한 연구’와 ‘안데스 문명과 한국 문명 전통에 있어서 신화적 기원에 대한 연구’ 등 창의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풍부한 도전적인 논문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번역 플랫폼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의 오류 해소를 주제로 한 논문과 포스트 에디팅(post editing)을 중심으로 한 NMT(인공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반 번역의 수업 설계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소의 미래 설계를 위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뛰어난 논문이 발표되며 본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 연구를 위한 미래 공유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논문을 발표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동계 학술대회 계획과 학술지 발간 계획,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의 참여 독려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에 대해 최창영 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가능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된 뜻깊은 대회였다.”고 자평하였다. 또

한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신인재 양성을 위해 시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 이와 관련된 양질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재정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확대에 의한 시 번역 전문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상에서도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언어기반 인문학연구소는 그 지평을 더욱 확대하여 현재 인공지능 기술기반 자연언어 및 번역 관련 전문업체와의 융·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국가 및 정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기 북부권 인공지능 기반 인문학 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 허브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슬비 기자〉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인재 양성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운영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신한대·경동대 업무협약 체결
이현정 교수 “이상적인 경찰의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 될 것”



지난 2021년 4월에 신설되어, 2022학년도부터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경기북부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도울 ‘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인 신한대학교, 경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식에는 이현정·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신한대·경동대 학생 등이 자리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및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와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배경으로 추진되어 온 제도이다. 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또한 안전한 경기 북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한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도울 서포터즈의 주요한 활동 내용은 바로 도민을 상대로 한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서포터즈는 SNS 홍보 활동 및 현장에 직접 나가 범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제시 및 검토 활동을 했던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이현정 교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이고,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포터즈가 생긴 것 자체는 홍보 목적이었다. 국민들은 기존 경찰과 자치경찰

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홍보였다. 서포터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자치경찰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며, 무엇이 이익인지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라며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과 함께, 앞으로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이끌어갈 이상적인 경찰행정학과 모습에 묻자 “경찰의 꿈을 안고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학기간 내에 합격을 해서 졸업식장에 경찰제복을 입고, 꿈을 이루는 것”이라며, “꿈을 꾸러 왔으면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교수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만 와달라. 서포터즈를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는 지난 2022년, 약 6개월 간의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성공리에 서포터즈를 마쳤다. 현재까지 해왔던 활동들과 같이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가 된다. 더불어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경찰행정학과 모습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 및 경찰실무 능력 등을 함양하여 미래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재가 되길 기원해본다.

〈이민주 기자〉



변화의 시작, 신한대학교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을 만나다.

편영민 총학생회장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지영 부총학생회장 “행한 학교를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2년간 부재였던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의 공백이 메워지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학교 안은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부재 또한 2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2022년 3월, 총선거를 통해 정 후보 편영민(15학번 디자인학부)과 부후보 이지영(19학번 글로벌통상경영학과)으로 이루어진 ‘비기닝’이 제3대 총학생회로 당선되었다. 새로운 총학생회의 출범으로 학생들의 열기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편영민 총학생회장과 이지영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보았다.

- 두 분의 총학생회 출마 계기는 무엇인가요?

영민 “제가 복학할 당시에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 후배들이 학교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된 거죠. 제가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학생회비 납부 여부나 학년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허들 없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지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대면 시기때 학교 근로와 학과 학생회장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후배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2년간의 총학생회의 부재를 너무 깊게 느꼈고 그 부재를 제가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 행한 학교를 내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영민 “저희가 에브리타임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에브리타임은 총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 학생 본인들은 부담을 조금 덜

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지영이는 항상 실명으로 소통을 하는데 저희도 그걸 늘 무서워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너희는 책임은 조금 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은 거죠.”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두 분이 학과, 학년도 다른데 어떻게 함께 뜻을 이루게 되었는지 과정이 궁금해요.

영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비대면 시대였기에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만났어요. 제가 글을 올렸어요.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고. 쪽지가 많이 왔었는데, 지영이가 오기 전까지 네 번의 (부총학생회장 후보) 교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영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학과 학생회장을 해봤다는 경력이 너무 좋았고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비기닝이 당선된 3월, 그들의 첫 행보는 ‘친해지길 바라’ 행사였다. 이른바 ‘친바’는 신청 학생들을 임의로 선정해 4인 1조를 이룬 후 조 내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하며 친구를 사귀는 행사이다. 친바 행사를 통해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학과나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학번이나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 상관없이 신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라는 점에서 ‘비기닝’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임기 동안 학생들과의 소통,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비기닝’은 정부의 거리 두기 해제 발표에 맞춰 ‘아만다’(아 쉽다, 만우절 다시 돌아와) 행사를 기획했다. ‘아만다’는 거리 두기 정책으로 아쉽게 지나가 버린 만우절을 다시 기념하며 선배들과 학우들 간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 행사이다.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행사의 취지에

맞춰 교복, 군복, 실습복 등의 다양한 옷을 입고 행사를 즐겼으며 행함관 앞쪽에는 푸드트럭의 떡볶이와 핫도그를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학생들로 붐볐다. 3년 만의 신한대학교는 학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 총학생회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영 “보람찼던 순간은 너무 많지만, 저는 그래도 아만다 행사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첫 행사이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교복을 입고 와준 게 예상을 못 했던 일이라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1학기 축제 때인 것 같아요. 축제 때 총학생회 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끝나고 다 같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 누구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누구는 약 먹고 토하고 그랬거든요.”

영민 “제일 보람찼던 순간을 묻는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랑 지영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학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저희가 부족했어요. 이 마음은 아마 지영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디엠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이 올 때 ‘우리가 아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아니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총학생회가 생겼을 때 ‘비기닝이 많이 부족했네’라고 기억될까봐 걱정이예요.”

-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영민 “제가 총학생회장이 돼서 학생팀의 여러 선생님들과 이지영이라는 부총학생회장을 만난 것, 8명의 국장을 만나고 총학생회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운도 실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력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영 “과연 학생들에게 2022년은 어떤 해로 기억됐을까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긴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 ‘비기닝’은 학생들에게 어떤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영민 “잘하지는 못 했었더라도 모든 학년을 대표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똑같이 하라고 하면 못 할 정도

로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총학생회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지영 “저는 재밌었던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어요. 어찌 됐든 대학 생활은 즐거워야 하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그 즐거움을 충족시켜줬던 학생회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영민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한대학교에는 6,200명의 학생이 다닌다. 그 학생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비기닝의 뒤를 이을 총학생회가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 시대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후대에게 교훈을 줄 선대 총학생회가 없던 상황에서, 편영민 회장과 이지영 부회장이 지금의 총학생회를 꾸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노력과 용기로, 지난 2022년은 많은 신한인에게 즐거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내 총학생회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유진 기자>



학생들이 그려낸 공연, 2년 만에 관객을 만나다.

신한대학교 K-POP전공 '악센(Accent)'
동아리 연합회 공연분과 연합공연 'BASH'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공연 예술계는 암흑기를 걸었다. 과거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면 환경의 공연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콘서트 등으로 대체됐다. 이러한 암흑기는 신한대학교에서 무대와 공연예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각종 학사 일정이 대면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꽃 피우던 무대공연들도 하나둘씩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무대는 지난 2년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온전했다.

■ 2022년, 8회차 '악센(Accent)' - 공연예술학부 K-POP 전공

지난 6월 17일, 오후 6시 반 에벤에셀관 지하 원형 극장에서 공연예술학부 K-POP전공 학생들의 자체 종합 공연 '악센(Accent)'이 개최되었다. '악센'은 과거 신한대학 실용음악과 시절부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해온 공연으로, 2015년부터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이 이를 계승한 것이다.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학기당 1회, 매년 총 2회씩 자체 공연을 선보이는데, 그중 1학기에 선보이는 게 정기 공연인 '악센'이다.

올해 진행된 8회차 '악센'의 공연 구성은 지난 2년간 대면 무대를 선보일 기회가 없었음에도, 현장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노련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사전에 관객들에게 야광봉 등의 무대 호응 도구를 나눠줌으로써 무대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또한, 댄스 무대와 보컬 무대를 적절히 조합하여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질릴 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주최 측의 노력 덕분인지, 공연 당일에는 기말고사가 임박했던 시기임에도 약 100여 명 이상의 학생과 관객이 무대 현장에 모였고, 함께 무대를 만들어갔다.

이날 무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무대를 준비한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총 2부 동안 12개의 무대로 구성된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학생들은 ▲기다린 만큼 더, ▲댄스 메들리, ▲사랑해요, ▲비도 오고 그래서, ▲TOMBOY,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질투나, ▲길 등의 선곡을 이용해 K-POP 무대를 선보였다.



■ 신한대학교를 대표하는 4개의 공연동아리 연합, '배쉬(Bash)' - 범, 악당, 소리패, 흥

지난 10월 7일,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들의 연합공연 'BASH'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 원형극장에서 펼쳐졌다. 'BASH'는 신한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소속의 공연분과 동아리 '범(BOMB)', '악당(AKDANG)', '소리패(SORIPAE)', '흥(HEUNG)'들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공연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힘을 합쳤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합 공연은 기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다른 공연들보다 여러모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여러 동아리의 연합공연답게 무대에 직접 오른 인원만 65명에 달했으며,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의 관객석은 가득 차서 서서 듣는 관객도 있을 정도였다. 공연 구성은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1부와 2부 사이에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객들을 집중시켰다. 1부 공연에서는 각 동아리별 공연이 주를 이루었으며, 악당의 ▲Trucker, ▲808, ▲kick it. 소리패의 ▲여행, ▲문. 흥의 ▲9-teen, ▲ASAP, ▲Fearless, ▲Pink venom, ▲SNEAKERS, 범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등 14개의 무대로 구성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공연에서는 동아리 간의 콜라보 공연이 주를 이뤘는데, ▲Rain, ▲잇을게, ▲Feel My Rhythm, ▲도깨비불, ▲90's Love, ▲Attention, ▲나빠, ▲공백, ▲Lucky 등 14개의 무대가 진행되었다.

BASH의 매력은 서로 다른 공연 스타일을 가진 각각의 동아리가 함께 준비한 콜라보 무대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서로 다른 소속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이라도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손발이 잘 맞았고, 이는 각 동아리가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이들이 보여준 무대의 수준은 축제 공연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변했던 우리의 생활양식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춰,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이어 내려온 공연의 모습도 비대면을 벗어나 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오랜만에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낸 올해의 공연들은 지난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또 이들이 만들어낼 무대를 기대한다.

〈김민성 기자〉



대담한 기자들 :

반석 위에 지은 집,
기초교양에 관한 대담

신한대학교는 창학 50주년을 맞이해 교양교육 개편을 단행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지식·기술·소양을 겸비한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새 목적 아래에, 신한대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들부터 창학이념의 이해, 언어와 수학, 과학과 소프트웨어 분야들에 능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교양 커리큘럼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과연 대학교의 ‘기초 교양’ 과목들이 대학생으로서 함양해야 되는 실력인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교과목이 그런 실력 향상에 적절한지 대해 기자들이 의견을 나눠보았다.

김민성 기자

저는 기초교양이라는 게 다른 학문의 도구 교과로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기초교양에서 배우는)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지 진정한 기초교양의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정윤지 편집장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기초교양이라고 하면 전공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공 과목을 배우는 데에 말 그대로 ‘기초’가 될 그런 과목들이 기초교양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재의 기초교양 과목 중에는 특히 대학 국어 강의가 좋은 기초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제게는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과목이거든요.

김유진 기자

두 분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대학 국어 과목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상이나 카드 뉴스 같은 미디어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글 자체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학 국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따로 배우는 것이 의미

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기초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교과목이 기초 교양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문의 지식을 쌓는데 토대가 되어줄 만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 국어가 참 좋은 교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성 기자

추가로, 저는 최근 기초교양에 과학 분야가 추가된 것이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만 해도 발생 초반에 ‘치료제도 없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공포를 조성하는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애초에 모든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맞거든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같은 기초적인 생물 상식만 알아도 세상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 두 가지(세균과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것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의 과학 상식은 나름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을 나왔으면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과학 수업은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신현 기자

저도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과학이랑 컴퓨팅적 사고, 수학 등 기초 교과목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갖는 게 우리 기초 교양의 의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논리적 사고가 여러 방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과목에 긍정적이에요.

강슬비 기자

저도 이번에 교양이 개편되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22학번부터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코딩 과목이 추가됐더라고요.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기초 교양에서 필수적으로 (컴퓨팅적 과목)배우게 되니까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학교가 나름 학생들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괜찮은 커리큘럼을 짜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강서현 기자

‘실용적’이라는 애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대학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수업을 들으며 느낀 건데, 발표나 레포트 수업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논문자료를 찾는 걸 꺼리고 어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논문 찾기 같은 것도 대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수빈 기자

교양이라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덕목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신한대학교는 ‘봉사 활동’이 기초 요건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런 방향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또, 봉사를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학문적인 과목과 사회봉사 실천 과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에, 사회봉사 과목도 보편적인 교양과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정윤지 편집장

수빈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회 봉사 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기초 교양과목이잖아요? 저는 이 사회봉사 교양이 보편적인 학술 과목들과는 달리 ‘봉사활동’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대학교마다 기초교양 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의 기초 교양 과목이 그 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서 창학이념을 실현하고 인류애를 펼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봉사)과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유진 기자

저도 사회 봉사 실천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복지관에서 노인 말동무 봉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방학을 보냈거든요. 이런 활동이 대학생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좋다고 생각해요.

하성문 기자

개인적으로 현재의 필수 교양 강의 방식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 영어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비대면 수업이거든요. 외국인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수업인데, 원어민 강사의 장점 중 하나가 원어민과 대면했을 때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토크 (Talking) 능력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업방식은 비대면 방식을 고수하다보니 교수님은 계속 혼자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답변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현재의 대학영어 수업 방식이 외

국인 교수님을 초빙하는 메리트를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실용 영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언어 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민주 기자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수학과 과학이 그게 필수인 게 사실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니까 본인의 의사에 맞게 더 다양한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채 기초교양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초교양 자체는 사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사회(환경)에서 필요가 없는데, 필수 교양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강해야 한다면 그 적절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저장할 해야하는데, 그게 전공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신현 기자

맞아요. 기초 과목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생기면 전공 공부에 지장이 가잖아요. 공부량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내가 OO 학 수업 받으려고 XX학과 입학했나~’와 같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필수여야 할까 생각해봐야 해요. 다만 기초교양의 취지가 여러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인 만큼, 저희는 수학적능력의 발전과 실용 학문의 적용 등 여러 소양을 갖추어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전공과의 타협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신현 기자〉



도서관에 생기를 불어넣다, ‘중앙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가한 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성황리에 마무리

11월 15일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북카페에서 ‘중앙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들을 비롯하여 김기순 중앙도서관장, 권영길 중앙도서관 부관장 등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당 공모전은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선정하는 경진대회로, 중앙도서관의 상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한 캐릭터를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과를 불문하고 신한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가했다. 공모작 출품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두 번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에는 총 36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41개의 작품이 나왔다. 수상은 총장상(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으로 총 10명이 입상하였다.

총장상(대상)의 영예는 ‘신중이’를 출품한 간호학과 1학년 이경은 학생에게 돌아갔다. ‘신중이’는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신중한 성격의 캐릭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경은 학생이 창조해낸 ‘신중이’의 세계관은 이렇다. 도서관 사서로봇인 ‘신중이’는, 전기로 충전하는 보통의 로봇과는 달리, 책을 읽어 ‘지식’으로 충전을 한다. 책을 좋아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는 ‘신중이’는 학생들에게 쉬운 책을 추천해 주곤 한다. 귀처럼 보이는 것은 스탠드이고, 앞머리로 보이는 것은 책갈피라고 한다.

이경은 학생은 신중이 캐릭터에 대해 “무언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캐릭터인데 도서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도 도서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상을 받은 뒤 “평소에 캐릭터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기회가 돼서 참가하게 되었는데, 대상까지 받게 돼서 기쁘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뒤이어 최우수상은 산업디자인전공 배하람 학생의 ‘채채’, 사회복지학과 소보민 학생의 ‘휴백이’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디자인학부 이채영 학생의 ‘도양’, 산업디자인전공 조은혜 학생의 ‘도랑이’에게 돌아갔다.

김기순 중앙도서관장은 “캐릭터 제작이 이전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는 여러 매체가 발달하면서 쉽게 접근하고 제작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36명의 학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업디자인전공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학과에서 응모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의 포스터, 교육교재, SNS 등 여러 홍보 매체와 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김기순 중앙도서관장 “디자인이라고 해서 특정 학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학과에서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중앙도서관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대상_신중이



도서관 이용 시 학생증을 챙겨주세요

#최우수_채채



#최우수_휴백이



#우수_도양이



#우수_도랑이



#장려_만복이



#장려_도람이



#장려_마키



#장려_비이



#장려_진리

C U L T U R E

과거에서 찾는 현재의 우리 투탕카멘 발굴 100주년 전쟁기념관 전시회

비운의 소년 왕, 황금 마스크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투탕카멘은 신왕국 18왕조의 전성기 말기에 단명한 파라오이다. 일생을 정치적 혼란 하에 살았으며 후사도, 특별한 업적도 없이 죽은, 거의 이름 없는 파라오로 여겨졌다.

이번 투탕카멘 발굴 100주년 전시회는 이 소년 파라오의 일대기와 후일담을 조명한다. 이집트 고고학 역사상 가장 많은, 좋은 질의 물건들이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된 본 전시회를 보며 그의 죽음 자체에도,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된 인상적인 전시회였다.

그의 아버지 아케나톤은 종교적·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다 끝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투탕카멘은 기존 기득권 귀족과 신관들에게 큰 반발을 얻던 아버지의 정책을 철폐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모든 정치적 행위는 유력 귀족들의 섭정으로 이루어져 파라오로서의 힘은 없던 일생을 보냈다.

투탕카멘은 우리가 악히 아는 피라미드가 아닌, 왕가의 계곡에 미라로 매장되었다. 그의 관에는 이시스와 네프티스라는 두 여신이 날개를 펼쳐 그를 오시리스의 심판대로 인도한다. 이집트인들은 깃털과 심장의 무게를 비교하여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가진 자는 두아트라는 지평선 너머 사후세계에서 부활한다고 믿었기에, 부활 시에 온전한 육체가 꼭 필요하기에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중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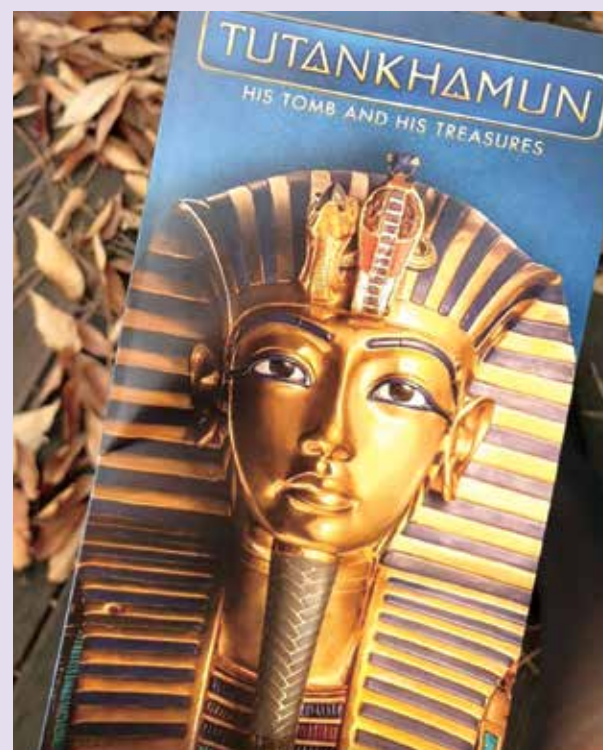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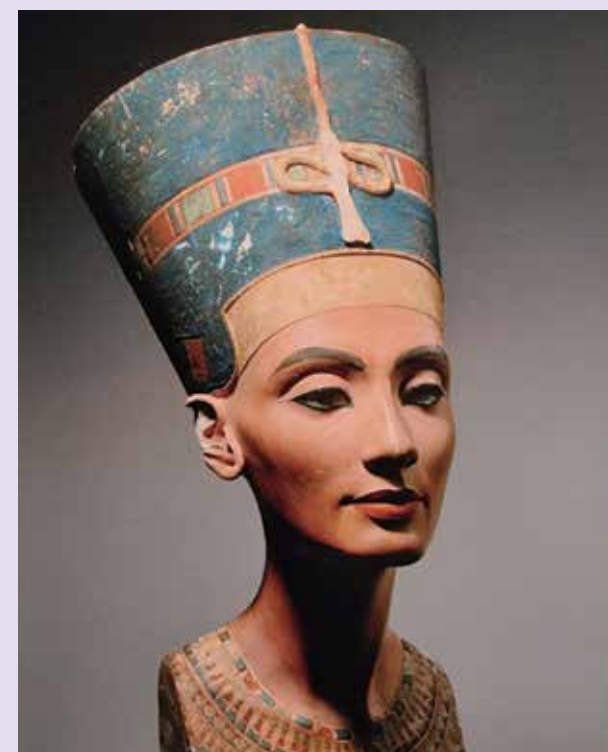
이를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짧은 현세계를 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들에게, 적어도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생을 맞이하는 기쁜 순간이라는 것을, 떠나 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의 밝은 미래를 기도하는, 우리의 결혼식과 비슷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반려동물의 죽음도 가족처럼 슬퍼하고, 항암치료 등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의 선택의 문제, 편하게 죽을 권리라는 이름의 안락사 등 우리는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죽음을 터부시해야 할지, 편하게 죽는다는 의미인 '웰다잉'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지, 정답이 없는 논의가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자신의 마지막을 잘 보낼 방법에는 심리적 준비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새로운 죽음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면 좋을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투탕카멘 전시회에서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이신현 기자〉



C U L T U R E

엇갈림 속에서 피어나는 무수한 결심들, 영화 <헤어질 결심>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 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찬욱’ 감독이 6년 만에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돌아왔다. 전작인 <아가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 비영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박찬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대중들은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작 <헤어질 결심>은 겉으로만 보면 여타 박찬욱 감독이 다뤄왔던 소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다. 소재만 본다면 그저 평범한 로맨스 영화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로맨스’에 집중한 영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영화를 시청하고 엔딩 크레딧까지 모두 본 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미묘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감정을 느낄 것이라 예상된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중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찰로서의 품위와 명예가 그 누구보다 중요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눈을 가려버리는 ‘해준’ (박해일). 남편인 ‘기도수’(유승목)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끔찍한 살인 용의자인 ‘서래’(탕웨이). 인물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대사에서도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래가 기도수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해 버린 채, 수사를 종결시킨 후에야 서래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한 해준은 서래의 범행을 덮기로 한다. 그리고는 서래에게 말한다.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해준이 말한 붕괴의 의미는 사랑에 눈이 멀어 범인을 놓쳤다는 것에 대한 자책과 한평생 해왔던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졌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서래는 붕괴의 사전적 정의인 ‘무너지고 깨어짐’을 해준의 ‘사랑’으로 이해하여 이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준과 서래의 사랑은 엇갈렸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중적인 면모들을 보여준다.

<헤어질 결심>은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메타포와 상징적인 연출들을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다. 영화는 ‘안개’를 상징적으로 다룬다. 해준의 아내 ‘정안’(이정현)이 살고 있는 도시인 ‘이포’가 안개로 유명한 지역인가 하면, 러닝타임 내내 정훈희의 노래 ‘안개’가 흘러나오곤 한다. 영화는 사·청각적으로 안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안개로 인해 가려져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을까. 또한, 영화는 1막과 2막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극 중에서 2개의 산이 나오는데, 초반에 서래의 남편이 추락사했던 ‘구소산’과 서래의 할아버지가 서래에게 남겨주었다는 ‘호미산’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구소산은 기도수를, 호미산은 강해준을 상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구소산은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야 했던 곳, 호미산은 마음만은 내 것이지만 가질 수 없는 곳으로 비유되어 두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수 많은 메타포는 영화를 더욱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바로 사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불륜’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준은 정안과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사이가 안 좋은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건에서 만난 ‘서래’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영화가 칭송받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불륜을 ‘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에서 금기된 것들의 파멸을 종종 다룬다. <헤어질 결심> 또한 그랬다. 단면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영화에서 불륜은 인물들 간의 엇갈린 감정과 이중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작용한 것이다.

영화는 어떠한 특별한 사회 문제 비판이나 복잡한 추리를 요하는 내용도 아니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었다. 어쩌면 ‘평범한’ 영화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극적인 요소는 덜했고, 인물들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작품성을 인정받는지도 모르겠다. 영화는 몇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더욱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인물들 간의 관계와 감정이었다. 박찬욱 감독은 인물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와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냈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캐치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영화를 본다는 행위 아닐까. <헤어질 결심>은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안개 같은 영화였다.

<이민주 기자>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다

프레임을 흔히 ‘편견’이라고 정의 내릴 것이다. 혹은 정의를 못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대개 부정적인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프레임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방금도 ‘프레임의 함정’에 걸려들진 않았는가?

이 책은 한 파트 전체를 프레임을 정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저자는 그만큼 프레임의 정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나머지 파트에서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독자들의 실생활에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을 만큼 쉬운 예시와 재밌는 상황들로 제시한다.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횡방꾼’이라는 제목의 파트에선 평소에 많이 쓰이는 공돈, 푼돈, 원래 가격, 문화비, 일일 이용권과 시즌 이용권, 원화와 달러화, 신용카드와 포인트처럼 돈에 이름을 붙여 자기합리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다. 저자가 이 파트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은 자기합리화된 돈의 이름은 오히려 소비를 자연스럽게 막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이름을 지어 자기합리화 하는 그 순간부터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주위를 둘러보며 리프레임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저자는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생각의 함정’이며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책 ‘프레임’은 생각의 함정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미디어 시대 속에서 경각심을 주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며 이로써 견문까지 넓혀줄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훌륭한 자기 계발서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책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성문 기자〉

“프레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마음가짐, 착각, 편견, 설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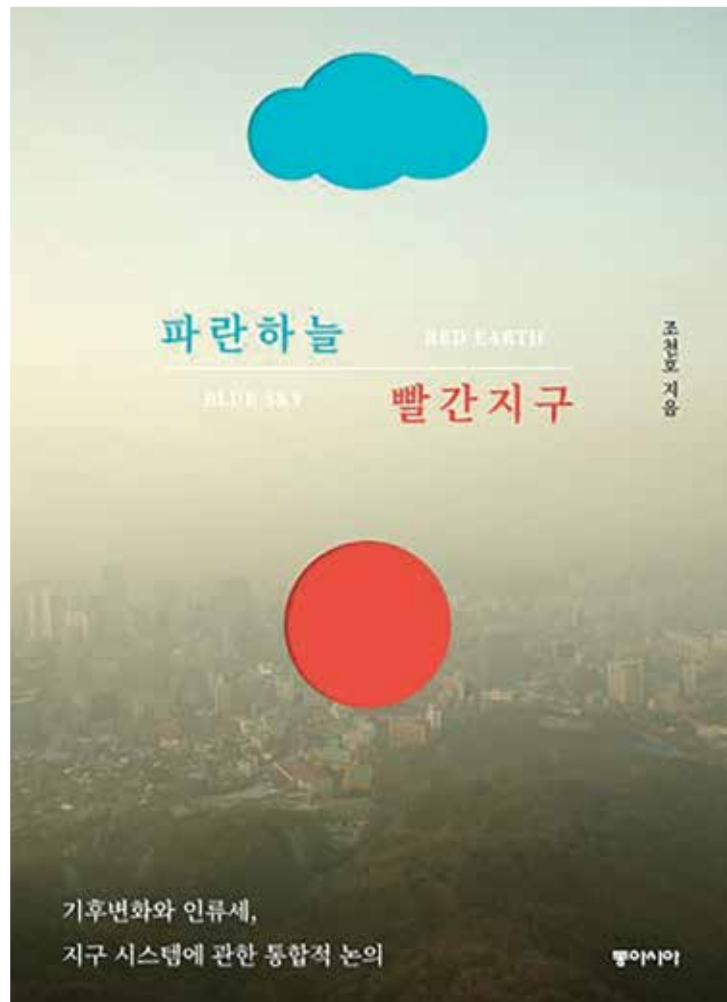
이 책은 ‘프레임’을 ‘마음가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윈스턴 처칠-



C U L T U R E

내가 살고 있는 지구, 과연 안녕한가? 〈파란하늘 빨간지구〉



지금의 기후 환경 좌표는 어디?

“향후 5년 중 적어도 1년은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년~1900년)보다 평균 섭씨 1.5도 이상 높을 확률이 48%이다.” 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이다. 지구의 평균이 1.5도 높아지는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면 당신은 현재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온 상승은 지구의 건강 지수와 같다. 쉽게 이해해보자면 인간의 평균 온도는 37.5도이다. 만약 인간의 평균 온도가 36도이고 1년 단위로 1도씩 오른다면 아마 몸은 버티지 못하고 모든 장기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온종일 시름시름 앓다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만약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가 현실화한다면 인간의 몸에 이상 변화가 곳곳에 생기듯이 지구 또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언제 어디서나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파란하늘 빨간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하여...

이 책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환경, 즉 지구 온난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 조천호는 대기 과학자로서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이었다. 그는 30년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하며 생각하고 느꼈던 모든 기후 변화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독자 즉,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계는 과거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 역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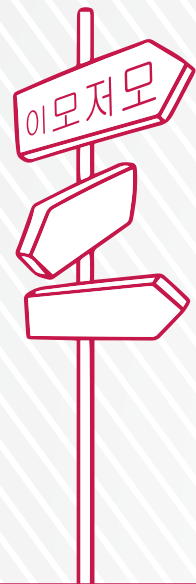
-「파란하늘 빨간지구」-

이처럼 지구에 사는 인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미래에 대해 추상적이고 ‘그때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래는 수백 년 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1년 뒤가 될 수 있으며 6개월 뒤가 될 수 있다. 그 1년 뒤의 미래 기후 환경은 지금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독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5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저지른 기후 파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들며 설명한다.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힘들다.’ ‘북극곰의 집을 망가뜨리지 말아라.’의 기후 위기 문구는 이제 옛말이다. 그 문구의 주어는 지구, 환경, 북극곰이 아닌 인간으로 바뀔 것이고 기후 포스터 속 중앙에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기후 위기 속 자연과 같은 모습의 인간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온난화에 대한 안일함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다.

지구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 우리가 지구에 살게 될 수 있던 것은 지구의 기후 환경이 우연히 인류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후의 안정기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강서현 기자〉



2022학년도 신한 gatekeeper(생명사랑지킴이) 4기 - 'Life 4 you' 캠페인 출범-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조성심 교수)는 2022학년도 신한 gatekeeper 4기 총 15명을 선발하였고 2022년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신한 gatekeeper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여,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요즘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잘 먹고 있나요?”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소소한 관심을 표현해주고, 재학생들에게 요즘 느끼는 우울한 감정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특별히 위험신호가 엿보이는 우울한 감정을 많이 표현한 학생에게는 자살예방센터 성인 우울척도를 점검해 보게 하고, 신한대학교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안내하였다.

강서현 기자



신한대-LX공사 국토정보발전 MOU 체결

신한대학교와 LX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4일 지역기반 콘텐츠 발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토정보 분야 공동 개발 모델을 발굴하고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며, “소통과 협업을 통한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국토정보 발전을 위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현 기자



신한대학교 에너지융합기술연구원(IE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거주환경공기 품질클러스터 간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신한대학교 에너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 10월 04일 (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주환경공기품질클러스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건설재료 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하성문 기자

신한대학교 외식조리전공, 2년 연속 '2022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금상 - 외식조리전공, 국제요리대회 참가팀 전원 금상-

신한대학교 외식조리전공 학생들이 '2022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과 전원 금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2022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는 4000명, 1000개팀이 출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신한대학교 외식조리전공 재학생 15명은 라이브경연(코스/단품요리)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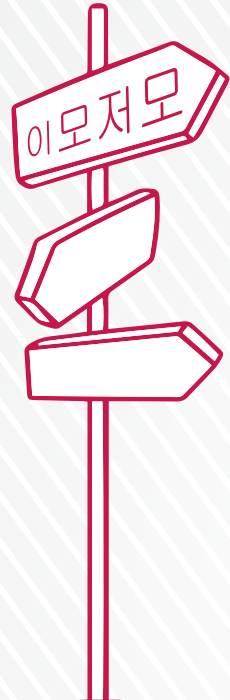
강서현 기자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윤미숙 교수 - 한국치위생과학회 13대 회장 선출! -

한국치위생과학회 제13대 회장에 윤미숙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회장직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윤미숙 교수는 당선 소감으로 “한국치위생과학회 출범 멤버로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회장직인 만큼 그 의미가 크며,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하성문기자



신한대학교-(사)한국능률협회(KMA)-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 협력 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는 2022년 11월 18일 (사)한국능률협회(이하 'KMA')와 산·학 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성중 총장은 “KMA는 뜻있는 기업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50년 역사의 신한대학교가 KMA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현 기자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최고 경쟁률 달성 -통합개교 이래 최다 지원자 수 및 최고 경쟁률 기록 11.53대 1 달성-

신한대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무려 1만 3706명이 지원해 통합개교 이래 최다지원자 수를 달성했다. 경쟁률 또한 11.53대 1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신한대학교는 최근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을 100%를 유지하는 등 수도권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강서현 기자



신한대학교, 영국 UCLAN 대학교와 첫 교환학생 파견 협인

신한대학교 국제처와 영국UCLAN대학교 국제처가 금번 협의 결과 2022학년도 2학기에 신한대학교에서 1명의 학생이, UCLAN 대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양교교환학생으로 상호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처 정우용 차장은 “앞으로 영국대학과의 다양한 방면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하성문 기자



신한대학교, 청와대 개방 태권도 공연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융합전공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방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시범단이라는 찬사와 함께 공연 초청을 받아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태권도 공연을 펼쳤다. 또한 '태권아트SHOW' 공연은 신한대학교 총장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신한대학교의 태권도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성문 기자



의정부시 최초 경로당 거점 어르신 스마트건강관리사업 - “스마트 건강 청춘경로당” 시범운영 -

‘스마트건강 청춘경로당 시범사업’은 2022년도 의정부시 재정지원사업으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에서 의정부시 최초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건강관리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신한대 간호학과 라파엘, 마인드허그,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IT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로타렉트 동아리 학생들이 스마트매니저로 각 경로당에 배치되어 어르신 활동 보조를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서현 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기봉	김인균	서종원	이승영	정인교	홍경옥	수요예배
강민준	김재용	서수연	이용걸	정정인	홍동희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강석만	김정훈	서장훈	이옥현	정지나	홍성희	신명치과상사
강선옥	김종규	서한교	이웅배	정진경	홍승희	신한대학교 학생팀 근로
강성중	김중현	성기명	이윤지	정한별	황경숙	아이씨티웨이(주)
강성현	김주신	송운홍	이은진	정희원	황만수	에스비에스 미디어넷
고영아	김준석	신경환	이재은	조석연	황정호	에이스테크
고태순	김지명	신용칠	이정아	조성심	황희숙	에이씨티(주)
고희정	김지윤	신유지	이정원	조성운	(사)아이들과미래재단	오스텀 임플란트
구호진	김진경	신종우	이정훈	조성재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학재단	이명화강석판대유한회사
권영길	김태원	신희정	이주현	조영숙	(주)경동소방산업	제일항업(주)
권운영	김현우	심재균	이찬주	조우택	(주)광명데이콤	주)천안메디칼
권태순	김혜령	심화섭	이청재	조윤희	(주)다일	주식회사 유비스포
김기순	김호성	안원익	이충환	조한아	(주)대산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유피소프트
김남중	남궁혁	안이수	이택준	조혜선	(주)봄메디칼	주식회사 임도유
김대형	도안나레	안태영	이현	주영훈	(주)소프트피아	주식회사 지오앤
김명준	류재경	안화미	이현비	진선범	(주)에스엠소프트	주식회사 청운실버케어
김문수	류현욱	양귀해	이현중	진원재	(주)우리강산시스템	주영인터내셔널(주)
김미소	민원표	양동진	이현주	차명순	(주)유니텍사이언스	청운실버케어
김미숙	민철기	양승희	이혜림	최경서	(주)유비온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김민정	박광용	어응수	임병우	최병호	(주)의정부장례예식장	해양광기업관리유한회사
김보선	박도신	오세인	임승희	최봉국	(주)태건비에프	현대자동차(주)
김보혁	박선희	오이균	임애련	최승구	(주)행복한 사람들	(주)동아홀딩스
김산	박성모	오해룡	임원선	최에스터	DK메디칼솔루션(주)	(주)제이와이시스템
김상아	박소정	오형철	임정화	최완규	GC KOREA	(주)하이덴탈코리아
김상현	박소진	유은경	장윤태	최은수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레디프로젝트(주)
김소민	박수근	윤금노	장은주	최지송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지점	문용석
김소영	박용배	윤미숙	장인봉	최지수	네이버시스템(주)	서수연
김수민	박정현	윤지원	전영주	최지오	대성대지문화매스유회회사	임영진
김순남	박주원	이광규	전유찬	최한용	더 램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조미식품
김순옥	박진우	이규태	전현주	한경희	더존환경기술(주)	
김승옥	박현수	이금숙	정상섭	한수범	사단법인 위드다문화	
김신아	박현철	이상록	정선도	한왕모	삼아사운드(유)	
김양훈	박호균	이상은	정세훈	한창식	삼원운송유한회사	
김연아	배시애	이상혁	정연희	한태희	서안종합건설(주)	
김옥자	변희진	이서영	정우용	허준용	서울대병원신한동문회	

자녀는 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필수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선택	연 락 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 장 명			부 서 명			
					직 위			
		E-mail						
우 편 물 수 령 지	☐ 자택 ☐ 직장	기 추 천 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 액	금()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 부 금 용 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자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 자동이체(CMS) / 휴대폰결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hinhan.ac.kr/)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 교직원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23. 02/ 202호

편집후기

강서현 기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집후기를 쓰자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럴 때 사 용하라고 만든 단어가 '시원섭섭'인 것 같다. 마지막 학년을 신문사의 활동으로 알차게 채웠다. 기사라는 유형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막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내가 쓴 기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이러한 걱정과 고심을 편집장님 그리고 신문사 부원들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유진기자

작년 201호에 이어, 이번 202호도 기자분들과 함께 참여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202호는 처음으로 단독 취재와 기사작성을 맡게 되어 크게 의미 있는 호로 기억될 것 같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고 도와주신 이선민 교수님과 8명의 기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교의 소식을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정윤지 편집장

벚꽃이 만개한 봄부터, 나무 끝에 소복이 눈이 쌓이는 겨울까지. 이번 호에도 어김없이 올해 신년의 소식을 담았다. 2018년부터 시작한 나의 신문사 활동이 이제는 막을 내릴 시간이다. 「신한특특」을 출간하기 위해 매번 힘써주시는 이종탁 교수님과 이선민 교수님, 그리고 일 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자랑스러운 신한대학교 신문사 기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신현 기자

기사를 전문적으로 써본 적 없던 제게는 다사다난한 일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과정에서 고민하고 글과 씨름하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년에도 더 먼 미래도 느려도 적더라도 한 발씩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을 얻어가 기 바랍니다

강슬비 기자

1년을 쉬고 돌아온 신문사는 여전히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이런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신한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발 빠르게 취재했다. 취재하며 만났던 사람들, 행사를 보며 이 학교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안고 왔지만 내가 과연 좋은 기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끝나가니 생각한다. 멋진 분들과 함께 신한특특을 만들 수 있어서 내게 너무 좋은 경험 이 되었다.

김치현 기자

1년간 편집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부장 기자로서 신문사에 보탬이 되었다. 평소 일 처리가 능숙하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한 윤지가 다음 편집장을 맡게 되어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 편집장 직책은 부족한 나에게 정말 과분한 자리였다. 특유의 모든 사항과 기자들의 기사까지 컨펌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되었지만,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다. 그만큼 편집장이라는 직책이 누구보다 고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묵묵히 수행한 윤지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항상 같은 위치에서 많은 바를 책임지고 해내는 동료 기자들,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선민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하성문 기자

올해 신문사에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계절을 맞고 있다. 평소 혼자 기사를 써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잘 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신한대학교 신문사에는 나의 글을 잘 만져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 나의 글은 한층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게나마 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됐고, 신문사 기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 이선민 교수님과 동료, 선배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좋은 글로 신한특특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싶다는 다짐으로 편집후기를 마친다.

김민성 기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 호를 작성하며 느꼈던 아쉬고 부족한 점도, 만족스럽고 뿌듯했던 점들도 이제 시간이라는 화살에 얹혀 날아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유독 다른 일들이 고되게 느껴져 이전에 작업했던 '신한특특'들 보다 정성을 쏟지 못한 듯해 의미 없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가장 힘든 것은 '지금'이다. 그 어떤 힘든 일도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고, 겪어본 후에는 시간이라는 바람에 풍화되어 추억으로 미화되기 마련이다. 고됨과 아쉬움으로 가득찬 무게의 순간은 오로지 지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충 전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됐던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잘 넘겨보자'라는 상투적인 것이다. 그럼 이만, 더 나은 다음 호를 기대하며

이민주 기자

어떤 일이든 시작은 어렵다. 도전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실패는 좌절을 낳기도 한다. 나에게 신문사 활동의 시작도 큰 과제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할수록, 기사를 쓰면 쓸수록 성장해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1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신문사 기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나날들이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번 시작을 발판삼아 열심히 활동하며, 한계 없는 성장에 도전해보고 싶다.

조수빈 기자

2020년도부터 신문사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202호 작성이 저에게 특히 많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던 행사들이 다시 재개하며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신한특특을 채워나가는 것에 더 흥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선민 교수님과 편집장님. 또 신문사 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번호도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